English | 이전 신문

설악시민뉴스

SEORAK CITIZENS NEWS

고성 · 속초 · 양양 · 인제

제11호 · 주간 | 2026년 8월 24일 (월) | 강원 아00423

이번 호 지면 PDF 다운로드

속보 ◆정부 8·13 공급대책 후폭풍…용산공원·그린벨트 두고 정부·서울시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득표

주요 뉴스 전국·설악권

2026.08.24

전국 뉴스

전문(全文)

맥락과 의미 중심 | 선정기준: 시의성·영향성·중요성·근접성 | 전국뉴스 v2.0

① 정부 8·13 공급대책 후폭풍…용산공원·그린벨트 두고 정부·서울시 충돌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공개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다. 용산공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약속한 곳으로, 특별법은 공원 외 목적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개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뉴스핌 | 2026.08.20]

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 득표율 54.08%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끝에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로 정청래 후보(45.92%)를 눌렀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경향신문 | 2026.08.17]

③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에 코스피 5.8% 급락 — 매도 사이드카 발동

19일 코스피가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5.80%(398.66포인트) 내린 6,471.17로 마감했다. 장중 낙폭이 6%대까지 확대되며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37%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 국고채 30년물도 4.751%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5천억원, 1조3천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4조6천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방어했다. 원-달러 환율은 14.1원 내린 1,397.7원으로 약 10개월 반 만에 1300원대에 진입했다.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 2026.08.19]

④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 — 미래대응기금 신설

기획예산처가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1972년 이후 55년 만에 폐지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며, 기존 산식과의 차액(약 20조원)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넘어가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된다. 교원단체 등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8월 24~28일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겨레·중앙일보 | 2026.08.21]

⑤ 왕이 방한, "남북 두 국가" 발언 논란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월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의에서 한국과 조선(북한)이 "두 국가"로서 공존의 기회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사령탑이 남북 관계를 별개 국가로 표현한 것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향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이 그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연합뉴스 | 2026.08.22]

전국뉴스 v2.0 | 도메인: 정치·경제·사회·외교 | 2026.08.24

📍 속초시 뉴스

전문(全文)

① 2026년 을지연습 실시 — 민·관·군·경·소방 협업체계 점검
속초시가 국가 비상사태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민·관·군·경·소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아주경제 | 2026.08.17]

② 워터밤 속초 2026, 22일 성황리 개최 — 여름 성수기 대미
속초시가 8월 22일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야외부지에서 대형 음악축제 '워터밤 속초 2026'을 열었다. 가수 비를 비롯해 타이거JK, 윤미래, 서인영, 비비, 사이먼 도미닉, 이영지 등이 출연해 음악과 물놀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약 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앞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교통·주차 대책, 다중 인파 관리,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사전 점검했으며, 관광객 유입이 지역 내 숙박·음식 소비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에 힘썼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뉴미디어타임즈 | 2026.08.22]

📍 고성군 뉴스

전문(全文)

① 2026년 을지연습 실시 — 함명준 군수 등 570여 명 비상소집 응소
고성군이 8월 18일 새벽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본청 직원 570여 명이 비상소집에 응소했으며,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해 양양군으로 주민이동훈련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양곡·생필품 배급제 훈련도 진행했다. 20일 민방공대피 훈련에서는 지역 중·고교생들이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CPR) 체험, 안보사진 전시회 관람에 참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 2026.08.18]

② 폭염·가뭄 딛고 올해 첫 벼베기 결실
평화경제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고성군이 올여름 이어진 폭염과 가뭄을 딛고 올해 첫 벼베기 결실을 맺었다. [한국연합신문 | 2026.08.20]

📍 인제군 뉴스

전문(全文)

① 2026 인제 별빛야시장 개장 — 전통시장에 활력
인제군이 8월 21일 인제전통시장 광장 일원에서 '2026 인제 별빛야시장'을 개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된 이 야시장은 9월 1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이동식 먹거리 매대와 프리마켓(8.21~22) 등이 함께 열려 지역 향토 먹거리와 퓨전·창작 요리, 글로벌 음식을 선보였다. [헤럴드경제·이뉴스투데이 | 2026.08.21]

②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고객만족도 전국 1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6.17점을 기록하며 상수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국 상수도 지방공기업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평균(82.90점)보다 3.27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제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민원 대응 등 이용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제신문 | 2026.08.19]

📍 양양군 뉴스

전문(全文)

① 관내 해수욕장 순차 폐장 — 폐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지속
양양군 관내 해수욕장이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공식 폐장에 들어간다. 군은 폐장 이후에도 일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폐장 이후 물놀이는 위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민일보 | 2026.08.20]

② 폭염특보 지속 — 무더위쉼터 상시 개방
8월 하순에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양양군이 경로당·주민센터 등 무더위쉼터를 상시 개방하고 있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강원지방기상청 | 2026.08.18]

연합뉴스·뉴스핌·파이낸셜뉴스·한겨레·중앙일보·조선일보·아주경제·이코노믹포스트·한국연합신문·쿠키뉴스·뉴미디어타임즈 수집 | 2026.08.24

🧭 풍향계 AI分析

신문 사설 흐름 소개 | 2026.08.17~08.22

분석 기간: **2026.08.17(월)~08.22(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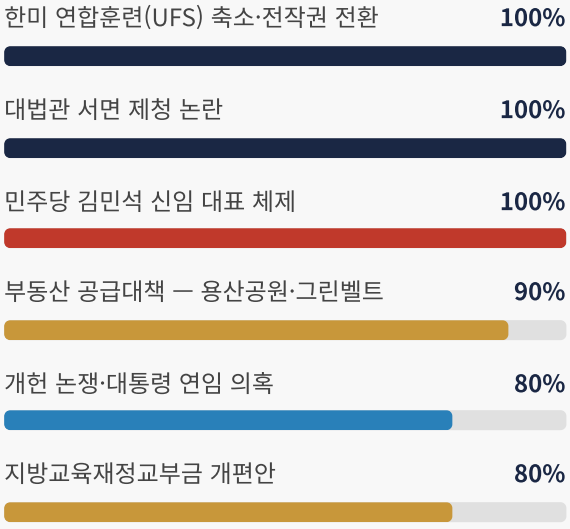
분석 대상: **정기 사설 발행 국내 주요 5개 종합일간지**

이번 주 언론 흐름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5대 매체 모두 다뤄…대법관 서면 제청·김민석 대표 체제·부동산 갈등도 공통 지적

이번 주 5대 신문(조선·동아·중앙·한겨레·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UFS) 축소 지시와 전작권 전환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예외 없이 다뤘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서울시 공급대책 갈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대다수 매체가 공통으로 짚었다.

🌡 이번 주 언론 의제 순위 (5대 신문 사설 집중도)



※ 5개 종합일간지(조선·동아·중앙·한겨레·경향) 사설 의제별 집중도(작성 편수 기준) | 분석 기간: 2026.08.17~08.22

이번 주 사자성어

剛愎自用 강퍅자용

성격이 억세고 고집스러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함

출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2년

📖 이주의 시사용어 — 이번 주 사설에 나온 말

미래대응기금 (재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줄어드는 차액과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기금입니다.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지만, 용처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이번 주 사설에서 지적됐습니다.

채권 자경단 (금융) —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반발해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며 금리를 끌어올리는 채권 투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번 주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이 표현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서면 제청 (사법행정) —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관례적으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온 것과 달리, 이번 주 사설들은 이런 방식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이번 주 풍향계 분석 사설에서 다룬 용어 중 이해를 돕기 위해 선정. 특정 진영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풍향계 v4.1 | 2026.08.17~08.22 2026.08.24 발행

전문(全文)

분석 기간: 2026.08.17(월)~08.22(토) | 풍향계 v4.1 | 분석 매체: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5대 종합일간지)

【1단계 — 신문별 주장】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대북 유화 기조 속에서도 훈련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서는 여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부동산 공급대책은 정부가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 온 책임이 크다며 협의 채널 가동을 촉구했다. 개헌 논의에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물갈이 시도에 대해서도 민심을 잃은 징계 정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돈·이란에 밀린 동맹"이라 표현하며, 사전 조율 없이 SNS로 공표한 방식이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서는 7개월을 끌다 관례를 깬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처신을 문제 삼으면서도, 대법관 제청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이·김의 승리 아닌 정·유의 패배"라 규정하며 신승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초·중등에 편중된 재정

을 고등·평생교육으로 넓히는 전기가 돼야 한다며 다른 매체와 달리 개편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발언과 호르무즈 지원 관련 불만 표출을 두고 한·미 동맹의 불안한 현주소가 드러났다며, 한국의 대응 자세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개발에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을 우려했고, 교육교부금 개편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분을 새 기금으로 다시 메워준다면 이름만 바뀐 재정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에는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주문했고,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은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만큼은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즉각적인 해명과 철회를 요구했다. 개헌 논의에서는 대통령이 참모를 통한 모호한 전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민석 신임 대표에게는 갈라진 당심을 통합하되 맹목적인 당정 일치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대책 갈등에는 양측이 소모적 싸움을 멈추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트럼프가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훈련 축소를 일방 결정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개발에는 다른 매체와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불가 태도가 온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향적 협의를 주문해 눈에 띄는 시각차를 보였다.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일방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정치 도발"이냐고 물었고, 개헌 논의에는 대통령이 "연임 없다"를 직접 선언해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는 내부 통합과 민심 경청을, 국민의힘의 장동혁 중징계에는 사당화 시도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 핵심어 매트릭스

의제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한미 연합훈련(UFS) 축소·전작권 전환	●	●	●	●	●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	●	●	●	●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	●	●	●	●	●
부동산 공급대책 — 용산공원·그린벨트	●	◐	●	●	●
개헌 논쟁·대통령 연임 의혹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	●	●	●	●

● 집중적으로 다룸 · ◐ 일부·간접적으로 언급 · — 이번 주 다루지 않음

【3단계 — 질문】
Q1(공통 미답): 다섯 매체 모두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훈련이 실제로 얼마나 축소되면 완전운용능력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매체는 없었다.
Q2(일부 다룬):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 조선·중앙·한겨레는 정부와 서울시 간 절차와 협의 부족을 문제 삼은 반면, 경향신문은 오세훈 시장의 전면 불가 태도 자체가 온당한지 물으며 서울시에 더 무게를 둔 비판을 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매체마다 협의 부재를 문제 삼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Q3(어떤 신문도 묻지 않은 질문):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국토부·서울시의 공급대책 충돌, 장동혁 대표의 당협 물갈이까지 — 이번 주 사설이 다룬 사안들은 하나같이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같은 패턴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 결정 방식이 왜 이번 여름 유독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났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짚은 매체는 없었다.

【사자성어 — 剛愎自用(강퍅자용) 선정 이유】
한미훈련 축소, 대법관 제청, 부동산 공급대책, 여당 당협 물갈이까지 —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기보다 먼저 결정부터 통보하고 나서야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이 이번 주 다섯 매체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억세고 고집스러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는 뜻의 이 성어는, 협의보다 통보를 앞세운 한 주의 결정 방식을 되짚어보게 한다.

剛愎自用(강퍅자용) | 剛(강할 강)·愎(강퍅할 퍅)·自(스스로 자)·用(쓸 용) — 성격이 억세고 고집이 세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 | 출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2년
※ 사자성어는 해당 주 풍향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특정 진영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방법론: 조선·동아·중앙·한겨레·경향 5대 종합일간지 사설 원문(2026.8.16~8.22 게재분, 총 80여 건)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이념 레이블을 붙이지 않고 각 신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풍향계 v4.1 | 2026.08.24

📊 여론동향 갤럽 제672호

직무 긍정 45% · 부정 45% (동률)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조사 2026.08.18~20) 기준입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

45%	45%	11%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의견 유보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 | 조사: 2026.08.18~20 |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응답률 10.0%

📉 대통령 직무 긍정률 추이 — 취임 후 최저권 지속

8월 1주(3~7일) —

8월 2주(11~13일) 긍정 44% **44%**

8월 3주(18~20일) 긍정 45% **45%**

* 데일리 조사 쉼(여름 휴가철, 7.27~8.7 제외) | 긍·부정 2점 척도, 재질문 1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

🗳️ 정당 지지도 — 민주 41% · 국힘 25% · 무당층 26%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 한국갤럽 제672호 | 조국혁신당 2%·진보당 2%·개혁신당 2% | 무당(無黨)층 26%

🏠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8%로 1위

부동산 정책 **28%**

경제/민생 **12%**

국방/안보/대북(+3%p) **7%**

* 한국갤럽 제672호 | 부정 평가자 449명 대상 자유응답 | 지난주 대비 ±3%p 이상 증감 항목에만 (+/-) 표시

※ 5-1단계 연계 지표 — 이번 주 풍향계 상위 의제인 부동산 공급대책·정부-서울시 갈등과 관련해, 갤럽 제672호의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 정책(28%)으로 나타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만 조사 기간(8.18~20)이 이번 주 풍향계 분석 기간과 겹치는 만큼, 8월 13일 발표된 공급대책 자체에 대한 반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계 주의:**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단일 조사 결과로 단정 금지 | 50사례 미만 소표본 지역 세부수치는 이번 호에 인용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 | 2026.08.18~20 | 2026.08.24 발행

전문(全文)

여론동향 | 2026년 8월 3주차 기준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

직무 긍정률	직무 부정률
45%	**45%**
지난주(44%)보다 소폭 상승	긍·부정 사상 첫 동률

【① 핵심 수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조사 8.18~20, n=1,004, ±3.1%p): 대통령 직무 긍정 45%/부정 45%/의견유보 11%(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7%)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국민의힘 25%·조국혁신당 2%·진보당 2%·개혁신당 2%·무당(無黨)층 26%

【② 전회차 대비 변화】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8월 2주, 44%)보다 1%p 오른 45%, 부정률은 지난주(46%)보다 1%p 내린 45%로 두 수치가 처음으로 같아졌다. 7월 4주(긍정 51%) 이후 긍정률이 계속 낮아지며 취임 후 최저권에 머물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1%·국민의힘 25%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③ 부문별 평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8%)이 1위였고, 경제/민생(12%), 국방/안보/대북(7%, 지난주 대비 +3%p)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9%)가 1위, 경제/민생(11%, 지난주 대비 -4%p)이 뒤를 이었다. 향후 1년 경기 전망은 좋아질 것 32%·나빠질 것 36%(Net -4), 살림살이 전망은 좋아질 것 20%·나빠질 것 25%(Net -5)로 두 지표 모두 비관 우위가 이어졌다.

【5-1단계 — 풍향계 연계 지표】

이번 주 풍향계 상위 의제인 부동산 공급대책·정부-서울시 갈등과 관련해, 갤럽 제672호의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 정책(28%)으로 나타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조사 기간(8.18~20)이 이번 주 풍향계 분석 기간(8.17~22)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8월 13일 발표된 공급대책과 그 직후 불거진 정부-서울시 갈등에 대한 반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통계적 유의성】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 10.0%, 접촉률 45.6%다. 강원(31명)·제주(14명) 표본은 상대표준오차가 20%를 넘어 이번 호에서는 지역별 세부수치를 인용하지 않는다.

【⑤ 설악권 시사점】
이번 주는 설악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28%,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이번 호 사설이 다루는 설악권 광역 협력 논의에서도 '공정한 손익 배분'이 왜 중요한 화두인지 짚어볼 만하다.

⚠️ **통계 주의:**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 단일 조사 결과로 단정 금지 | 50사례 미만 지역 세부수치는 이번 호에 인용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조사 2026.08.18~20, 1,004명, ±3.1%p, 응답률 10.0%, 접촉률 45.6%) |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자세한 내용: 한국갤럽 홈페이지 갤럽리포트 게시판

🗣 시민의 소리 사설

P-05 | 2026.08.24

🗣 시민의 소리 광역 의제는 합의로 시작됩니다

설악권 광역 협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성·양양·인제에서 나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속초가 수익 다 가져가고 비용만 우리한테 남기는 것 아닌가요?"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이번 호 사설은 이 불균형을 해소할 공정한 손익 공식과 규약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시민 기고 환영합니다 → jcjwk54@gmail.com

전문(全文)

시민의 소리 | 사설(편집장 집필) | 2026.08.24

📝 케이스 ① 편집장 직접 제작 — 이번 호는 시민 기고 미수신으로 편집장이 사설을 작성했습니다.

사설 P-05 | 광역 의제는 합의로 시작됩니다

설악권 광역 협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성·양양·인제에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속초가 수익 다 가져가고 비용만 우리한테 남기는 것 아닌가요?"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설악산 탐방객 상당수가 속초에서 숙박하고 식사합니다. 수익은 속초에, 도로 정비와 환경 부담은 인근 군에 남는 구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정한 손익 공식 없이는 광역 협력이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해법은 공동관광기금을 만들고, 수익과 부담을 투명하게 나누는 정산 원칙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여도와 환경 부담에 따라 네 곳이 적절히 배분받는 구조 — 이것이 규약에 명문화될 때 파트너십은 지속됩니다.

📮 시민 기고 환영합니다 → jcjwk54@gmail.com

김준철 편집장 | 설악시민뉴스 제11호 | 2026.08.24

💬 이슈&토론 경제·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한가

이슈&토론 No.11 | 2026.08.2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한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으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대기업 비정규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단일 기준이 과연 공정할까요. 관광·숙박·요식업 비중이 높은 설악권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합니다.

👍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음식점·편의점 등은 마진이 낮아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에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획일적 기준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단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 가능한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나누면 취약 업종 저임금 노동자들이 영구적으로 낮은 임금에 갇힐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할까요?

전문(全文)

💰 경제·노동 — 최저임금 논쟁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올해 1만320원보다 3.7% 인상)으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대기업 비정규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단일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 관광·숙박·요식업 비중이 높은 설악권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합니다.

👍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농어업 등은 마진이 매우 낮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에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미국은 지역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 기준이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 가능한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나누면 취약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구적으로 낮은 임금에 갇힙니다. 차등화 논의가 사실상 최저임금 인하 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

✏️ 편집자의 관점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그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 두 입장이 공존하는 설악 지역에서 이 논의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할까요?

👍 차등 적용 필요 0

👎 단일 기준 유지 0

아직 투표 결과가 없습니다 — 첫 투표를 남겨보세요!

✒ 편집자 레터 제11호

EDITOR'S LETTER | 2026.08.24 제11호

광역 의제는 합의로 시작됩니다 — 제11호

이번 호는 사설(P-05)과 이슈&토론(No.11)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질문을 던집니다. 사설은 설악권 광역 협력이 '속초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넘어서려면 공정한 손익 공식과 규약이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슈&토론은 최저임금이라는 전국 단일 기준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지를 묻습니다.

— 편집장 김준철 | 제11호 | 2026.08.24

전문(全文)

설악시민뉴스 제11호 편집자 레터 | 2026.08.24

이번 호는 사설(P-05)과 이슈&토론(No.11)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질문을 던집니다. 사설은 설악권 광역 협력이 '속초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넘어서려면 공정한 손익 공식과 규약이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슈&토론은 최저임금이라는 전국 단일 기준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지를 묻습니다. 두 질문 모두 '하나의 기준을 여럿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충돌했습니다. 이번 주 풍향계가 고른 사자성어 剛愎自用(강퍅자용)은 이 흐름과 통합니다 — 부동산 정책, 개헌 논의, 교육교부금 개편까지, 정부가 사전 협의보다 발표를 먼저 하고 나서야 진통을 수습하는 모습이 유독 두드러진 한 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고, 19일에는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코스피가 5.8% 급락하며 6,471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번 호 여론동향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8월 18~20일 조사) 기준입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5%로 부정률(45%)과 처음으로 같아졌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28%)이었습니다 — 이번 주 풍향계가 짚은 부동산 갈등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설악권에서는 속초가 을지연습에 이어 워터밤 속초 2026을 성황리에 마치며 여름 성수기 대미를 장식했고, 고성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접경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을 딛고 첫 벼베기 결실을 맺은 고성의 소식은, 이번 호 사설이 말하는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넘어서는 힘'과도 통합니다. 인제는 별빛야시장을 열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고객만족도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양양은 관내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폐장에 들어가며 여름 성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제12호, 8월 31일)는 사설 S-01(산부인과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과 이슈&토론 No.12(건강보험 민영화, 해야 하나)로 준비합니다.

— 편집장 김준철 드림
2026.08.24, 제11호

📋 설악권 공지사항 속초·고성·양양·인제

2026.08.24 기준

📍 속초시

✏️ 공모전

문화누리카드 제13회 수기공모전 — 8월 31일 마감

속초시가 문화누리카드 이용 경험을 담은 제13회 수기공모전 참가작을 8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여행·체육활동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 속초시청 033-639-2000

💳 소비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쓰면 경품까지 — 사용 촉진 이벤트 진행 중

속초시가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 가맹점 이용 시 경품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금을 쓰지 않은 시민은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에서 사용처와 이벤트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속초시청 033-639-2000

📍 고성군

🏆 시상

고성군민상 후보자 접수 — 8월 28일까지

고성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귀감이 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28일까지 고성군민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문의: 고성군청 033-680-3000

🏖 해수욕장

해수욕장 입수가능 현황 매일 안내 — 일부 구간 부분통제

고성군이 관내 해수욕장의 입수가능 현황을 매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일부 구간은 부분통제 중이며, 통제 구간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문의: 고성군청 033-680-3000

📍 양양군

🏊 강습모집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8~9월 강습 모집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수영장이 8~9월 강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강습 시간대는 문화복지회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양양군청 033-670-2000

📋 사실조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양군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방문 시 신분 확인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양양군청 033-670-2000

📍 인제군

🌊 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안내 — 보험료 최대 92% 지원

인제군이 8월 소식지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문의: 인제군청 033-460-2000

🚨 안전신고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인제군이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빗물받이 막힘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군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제군청 033-460-2000

📢 신문사 공지 설악시민뉴스

제11호 | 구독·기고 안내

📮 시민 기고 모집 — 상시

- **시민의 소리:** 지역 이슈 시민 칼럼 (600~1,000자)
- **이슈&토론 제안:** 설악권 현안 토론 주제 제안
- **제보·독자 투고:** 지역 사실 제보 환영

📞 전화: **0502-1949-1230** 📧 투고: **jcjwk54@gmail.com**

🗳️ 제11호 이슈&토론 투표 참여해 주세요

이번 호 이슈&토론 No.1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한가'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슈&토론 섹션 본문 하단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앱처럼 설치하세요 — 무료·광고없음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바로 실행됩니다. 앱스토어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없음.

📅 다음 호 — 제12호 (2026.08.31 월)

-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월)**
- 사설: S-01 산부인과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 이슈&토론: No.12 건강보험 민영화, 해야 하나

이 주의 문장

"자유는 강제의 부재일 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제1장

📖 사자성어와 함께 읽는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 『잠언』 12:15

"The way of fools seems right to them, but the wise listen to advice." (NIV) — Proverbs 12:15

剛愎自用(강퍅자용)이 경계하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태도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미련함을 경계하고 권고에 귀 기울이라는 잠언의 가르침과도 통한다.

설악시민뉴스

자유 민주주의 · 시장자본주의 · 정의와 사랑을 원칙으로 사실 기반 보도

등록번호: 강원 아00423 | 등록일: 2026.05.14
발행인·편집인: 김준철 | 발행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봉로3길 70
전화: 0502-1949-1230
기사제보: jcjwk54@gmail.com

© 2026 설악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설악시민뉴스가 제작·배포하는

🏔 **속초 관광 가이드** (https://www.visitsokcho.kr)

바로가기 →